

▶ 매일 INDEX



12면

태인출신 천재 서예가의 모든 것

2021년 9월 27일 월요일(음 8월 21일) 제2867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습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이재명, 민주 전북 경선서 1위

<경기도지사>

총 투표수 4만838표 중 54.55%인 2만2276표 득표

이낙연 전 대표, 38.48% · 박용진 의원, 1.25% 얻어

김두관 의원, 경선 후보직 사퇴… “이재명 지지 선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전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1위에 올랐다.

광주·전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122표의 근소한 격차로 일격을 맞았던 것을 설욕하고 여권의 최대 기반이 호남에서 다시금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위한 대세론을 다진 셈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1위를 유지했다.

이날 오후 원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지역 경선 개표 결과, 총 투표수 4만838표 중 이재명 도지사가 2만2,276표(54.55%)를 득표하며 1위에 올랐다.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1만5,715표(38.48%)를 얻은 데 그쳤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127표(5.21%)였고, 박용진 의원 512표(1.25%), 김두관 의원 208표(0.51%) 순이었다.

전북권 경선에는 총 7만6,191명의 선거인단 중 4만83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3.60%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도 전북을 더해 이재명 도지사가 53.01%(34만1,858표)로 과반 선두를 굳건히 했다.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34.48%(22만2,358표)로 접계됐다.

이지사와 이 전 대표의 표차는 11만 2,944표에서 11만9,505표로 더 벌어졌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 10.60%(6만 8,362표), 박용진 의원 1.23%(7,946표), 김두관 의원 0.68%(4,411표)이 뒤를 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남 광주 전북을 합한 호남 지역 전체로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며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호남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하겠다”면서 “아제 까지 해온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진정한 마음을 더욱 더 잘 알려드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전북 경선 후 이재명 도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 후보직에서 종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원팀으로 단결해서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오로지 그것 하나 때문에 사퇴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활동 연설회가 열린 26일 원주군 우석대 학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설을 하고 있다.

내달 10일까지 추계 도로 일제정비

도, 위임국도 · 국가지원지방도 등 70개 노선 대상

포트홀 · 바퀴자국 패임 · 산마루 축구 정비 등 중점

전북도가 다음 달 10일까지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법정도로 등 70개 노선, 2,159km에 대한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대상은 위임국도 8개 노선 259km, 국가지원지방도 6개 노선 254km, 지방도 56개 노선 1,640km이다.

중점 정비사항으로는 ▲포트홀, 바퀴

자국 패임, 맨홀 단자 등 포장 파손 부위 정비, ▲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을 기능회복, ▲배수관 준설 및 세굴 부위 정비, ▲산비탈 축구 정비,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권민호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 정비를 통해 도로의 기능 및 품질을 향상해 도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한 장비 및 인력을 활용 제초작업과 도로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정리해 폐적인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권민호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 정비를 통해 도로의 기능 및 품질을 향상해 도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약 440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긴급보수, 배수시설, 안전시설 정비, 덧씌우기 공사, 절개지 정비사업, 위험도로 정비, 터널 및 교량 정비 등 215건을 추진해 120건을 완료했다.

또한, 9월 2회 추경에서 3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방도 751호선 비탈면 정비사업, 국지도 15호선 고창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668억원 확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공모 선정 사업비 포함

전북도, 올해 590억원 대비 78억원 증액

저수지 · 조기경보시스템 분야 국비 전국 최다

재해예방 각종 공모 선정 인센티브로 25억 추가

전북도가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로 역대 최다 금액인 668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128개 지구가 반영됐다.

이는 올해 확보한 국비 590억원보다 78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확보한 국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6개 지구 118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2개 지구 313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22개 지구 94억원, 재해위험지수지 정비 36개 지구 64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0개 지구 5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개 지구 25억원이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128개 지구를 정비하는데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336억원 규모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올해까지 4개 지구 공모 선정된 것에 이어, 내년에도 남원 사석지구와 임실 오수지구 등 2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468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선정된 2개 지구는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 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행정안전부

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로 한번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주민에게 미리 알려주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노후 저수지의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각각 30개 지구 52억 원, 36개 지구 64억원이 반영돼 전국에서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재해예방사업 축진실태 우수기관 선정, 올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시례 공모,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 선정에 선정돼 국비지원 인센티브로 25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 주요했다.

전북의 재해예방사업은 올해 108개 지구에 비해 20개 지구가 증가한 128개 지구가 반영됐다.

이에 내년에는 설계부터 시작하는 사업 지구가 많아진 만큼 각종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그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 재무기와 컨설팅단을 유형해 국비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